

세계화 전략을 위한 한국문화의 정체성

— 한국인의 미적 지각과 표상 방식 —

장미영(전주대)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상징어 |
| 2. 문화 상징 | 5. 맺음말 |
| 3. 혼과 『혼불』 | |

<국문 초록>

이 글은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단일 국가적 삶의 협소함과 단조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단일 국가적 삶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글로벌화라는 시대적 조건 하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문화를 세계화할 수 있는 전망은 세계 속에서 한국문화를 부단히 재창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다. 한국문화의 세계화는 한국문화 자체를 극복과 지양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실험적인 모색을 통해서만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다. 이러한 실험적인 모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본고는 오늘날 한국인이 자기를 주장하고 드러내는 근거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려는 것이다.

2006년 7월 당시 문화관광부는 한국인의 대표적인 문화상징 100가지를 선

정하여 널리 공표했다. 문화관광부가 밝힌 100대 민족문화상징이란 우리 민족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간적·시간적 동질감을 바탕으로 형성해온 문화 중 대표성을 가진 100가지 상징을 말하는데 태극기, 독도, 세종대왕, 한글 등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분야로부터 최근의 길거리 응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최명희의 대하소설 『혼불』은 한 민족의 미적 지각이 삶 자체의 진실성과 어떻게 연관되며 한 인간을 형성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형상화한 작품이다. 『혼불』은 방대한 민속자료를 동원하여 그 각각에 대한 정서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미적 지각의 양상을 농밀하게 묘사했다. 『혼불』에 등장하는 방대한 민족문화상징은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자세하다.

『혼불』에는 대화와 지문을 막론하고 상당히 많은 상징어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총 10권으로 이루어진 『혼불』의 어느 면을 펼치더라도 상징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이다. 『혼불』을 통해 살필 수 있는 것처럼 한국어에서는 진술내용과 관련된 동작주체에 대해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필수적으로 표현되며 행동, 상태의 양상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평가와 정서적인 인식 태도가 구체화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진술내용에 대한 미적/감성적인 언어표현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미적/감성적인 언어표현은 한국인의 미적 지각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서 언어생활전반을 관통하고 있다.

한국문화의 세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인의 고유한 미적 지각과 표상 방식을 어떻게 살려나가면서 소통을 도모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실천 방안을 찾는 일이다. 한국문화의 세계화는 한국인 고유의 삶의 방식과 정신을 널리 세계에 전파하여 그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고 세계화의 궁극적 종착역은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한국문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지점이다.

주제어 : 미적 지각, 표상 방식, 문화상징, 상징어, 세계화, 정체성

1. 머리말

한국인의 미적 지각과 그 표상 방식을 논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한국인의 삶의 형식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다. 인간의 삶은 자연적 실재와 달리 다양한 규범체계에 의해 조성된 질서와 일정한 형식을 갖춰 구성된 형상으로서만 실존으로 이해될 수 있다.¹⁾ 질서 지워지고 구성된 삶의 형식은 사회·문화적 관계를 재현한다. 즉 미적 지각이나 표상 방식 또한 이성의 질서에 의해 수렴되고 제도화되어 훈육을 통해 길들여지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적 지각(aesthetic perception)이란 세계 내에 실존하는 어떤 대상 속에 내재된 미적 가치와 특성을 발견하고 체험적으로 느끼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미적 가치와 특성을 가진 대상은 우리가 예술작품을 지각할 때 가질 수 있는 정서적 강렬함과 희열을 느끼게 하는 존재이다. 미적인 것은 하나의 지각 양상(mode of perception)이고 미적 대상은 물리적 대상과 명확히 구분된다. 미적 대상은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문화적 존재자(sentient being)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미적 지각은 예술가의 의도와 기교뿐만 아니라, 상상력에 의한 연상들, 개현적·상징적 취지, 역사적 영향력, 전통의 사용 등 다양한 종류의 정보 전체를 배경으로 하여 해석된다.²⁾

미적 지각은 독특한 논리적 통일성(uniformity)을 보여준다. 미적 지각은 ‘~이다(is)’, ‘~처럼 보인다(appear)’고 판단할 수 있는 조건화된 지각 능력을 필요로 한다. ‘시가 잘 짜여져 있다’거나 ‘균형 잡힌 그림’이라고 판단할 때는 이미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전제조건에 의거해 있는 것이다. 미적 지각은 ‘합당한’, ‘허용 가능한’, ‘이해 가능한’ 등의 용어가 선호되는 사회·문화적 동의 내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미적 지각이란 혼자만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미적 감수성과는 구별되는 공식적 판단이다.³⁾ 즉 미적 지각은 사회·문화적으로 제공된 기준과 배경지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
- 1) 임흥민, “미적 실존의 조건들”, 고려대철학연구소, 『철학연구』, 제36집, 2008, 242~244면.
 - 2) 서원주, “미적 속성의 존재론적 특성에 관한 고찰”, 대구가톨릭대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8권, 2007, 247~251면 참조.
 - 3) 서원주, 앞의 논문, 255~263면 참조.

는 것이다.

인간 삶의 모든 표현들은 일련의 형식적 틀에 의해 정돈되고 복제 가능하게 된다.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대부분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사회적 통합의 측면에서는 특정 규범문화의 재생산을 유리하게 만들어 주는 조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⁴⁾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한국인의 미적 지각과 그 표상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달리 말하면 한국인의 미학적 실존을 규제하고 조정하는 요인을 밝히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단일 국가적 삶의 협소함과 단조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단일 국가적 삶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글로벌화라는 시대적 조건하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문화를 세계화할 수 있는 전망은 세계 속에서 한국문화를 부단히 재창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다. 한국문화의 세계화는 한국문화 자체를 극복과 지양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실험적인 모색을 통해서만 그 길을 열어가갈 수 있다.⁵⁾ 이러한 실험적인 모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본고는 오늘날 한국인이 자기를 주장하고 드러내는 근거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려는 것이다.

2. 문화 상징

인류는 문자를 포함한 상징(symbol)과 도상(icon), 지표(index)으로써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으며, 서로 의사를 소통한다. 여기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어 내는 행위를 의미작용(signification)이라 하고, 의미 작용과 기호를 통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를 커뮤니케이션이라 한다.

상징은 인간·사물·집단 등의 복잡한 개념을 단순하게 나타내거나 표시하도록 만든 의사전달의 한 요소이다. 상징은 그리스도교의 십자가, 그리스도교 구명단체의 적십자, 이슬람 국가의 초승달 등과 같이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프랑

4) 임흥민, “미적 실존의 조건들”, 고려대철학연구소, 『철학연구』, 제36집, 2008, 242~244면.

5) 임흥민, 앞의 논문, 256면.

스의 마리안, 영국의 존 불, 미국의 앵클 샘처럼 인물을 표상화시켜 사용할 수도 있다.⁶⁾ 이러한 상징은 미적 대상을 지각하는 활동에도 내포되어 교양의 깊이를 기증하는 문화로 발현된다. 이중 미학적 감수성에 기반한 문화상징은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계층을 넘어서 폭넓게 공감대를 형성한 공동체의 문화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2006년 7월 26일 당시 문화관광부는 한국인의 대표적인 문화상징 100가지를 선정하여 널리 공표했다. 문화관광부가 밝힌 100대 민족문화상징이란 우리민족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간적·시간적 동질감을 바탕으로 형성해온 문화 중 대표성을 가진 100가지 상징을 말하는데 태극기, 독도, 세종대왕, 한글 등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분야로부터 최근의 길거리 응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100대 민족문화상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발굴되었다.

- 첫째, 우리민족의 민족적·사회적 관습, 일명 에토스를 형성하는 문화적 원형질로 상징성을 가질 것
- 둘째, 문화콘텐츠로서 산업화가 가능할 것
- 셋째, 유네스코 지정문화재 등 우리문화의 세계화에 기여도가 높을 것
- 넷째, 통일문화 형성 차원에서 남북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상징도 포함
- 다섯째, 국제분쟁이 있는 상징물 우선 선정(독도, 동해 등)

이상과 같은 기준에 의해 발굴되어 최종 선정된 100대 민족문화상징은 다음과 같다.

6) 브리태니커 백과사전(<http://enc.daum.net/dic100/contents>)

100대 민족문화 상징 최종 선정 결과

분야	세부분야	선 정
한민족의 상징 (2개)	민족상징(2개)	태극기, 무궁화
강역 및 자연상징 (19개)	강역(6개)	독도, 백두대간, 백두산, 금강산, 동해, 대동여지도
	경관(3개)	황토, 갯벌, 풍수
	동식물(4개)	소나무, 진돗개, 호랑이, 한우
	과학기술(6개)	천상열차분야지도, 거북선, 측우기, 물시계와 해시계 (자격루와 앙부일구), 수원화성, 정보통신(IT)
역사상징 (17개)	선사(2개)	고인돌, 빗살무늬토기
	도읍(3개)	서울, 경주(서라벌), 평양(아사달)
	인물(9개)	단군, 광개토태왕, 원효, 세종대왕, 퇴계(이황), 이순신, 정약용, 안중근, 유관순
	사찰(1개)	석굴암
	현대사(2개)	비무장지대(DMZ), 길거리 응원
사회 및 생활상징 (34개)	경제(2개)	오일장(장날), 잠녀(해녀)
	마을생활(6개)	강릉단오제, 영산줄다리기, 솟대와 장승, 두레, 정자나무, 돌하르방
	의생활(3개)	한복, 색동, 다듬이질
	식생활(11개)	김치, 떡, 전주비빔밥, 고추장, 된장과 청국장, 삼계탕, 옹기, 불고기, 소주와 막걸리, 냉면, 자장면
	주생활(4개)	한옥, 온돌, 제주도돌담, 초가집
	건강·체육(6개)	동의보감, 인삼, 태권도, 씨름, 활, 윷놀이
	교육(2개)	서당, 한석봉과 어머니
신앙 및 사고상징 (9개)	불교(2개)	선(禪), 미륵
	유교(3개)	효(孝) 선비, 종묘와 종묘대제
	무속(4개)	굿, 서낭당, 도깨비, 금줄
언어 및 예술상징 (19개)	언어(1개)	한글(훈민정음)
	기록(4개)	한지, 조선왕조실록, 팔만대장경, 직지심체요절
	미술(7개)	고구려 고분벽화, 반가사유상, 백제의미소(서산마애삼존불), 고려청자, 백자, 분청사기, 막사발
	연희(2개)	풍물굿(농악), 탈춤
	음악(4개)	판소리, 아리랑, 거문고, 대금
	문학(1개)	춘향전

문화관광부에서는 100대 민족문화상징 최종안 선정 이유를 다음과 같이 낱말이 밝혔다.

* 상징별 선정 이유

1. 태극기: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 자체가 문화적 상징 직관물임
2. 무궁화: 대한민국의 국화. 근역(權域)의 역사적 함의
3. 독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상시적으로 대두됨. 한반도 해양 구역의 제일 상징물
4. 백두대간: 한반도의 등뼈. 그 자체로 넓은 지역과 사람들, 문화를 두루 내포함
5. 백두산: 한민족의 성산(聖山),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 백두대간의 시작
6. 금강산: 가장 빼어나고 수려한 산의 상징
7. 동해: 세계적으로 명칭 자체를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상시적으로 대두
8. 대동여지도: 한반도 강역을 가장 정확하고 포괄적이며 상세하게 그린 지도
9. 황토: 한국적 흙의 정서를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상징물. 황톳길, 황토방 등 황토를 매개로 한 무한한 연계물
10. 갯벌: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로 갯벌 자체가 인간과 자연이 빚어낸 바다밭의 문화적 상징물임. 생태문화 으뜸 상징
11. 풍수: 전통적 환경사상이자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응축된 자연생태학. 전통적 최적 주거입지론. 최근 중국·일본 외 구미에서도 확산 추세.
12. 소나무: 한반도 식생의 상징. 소나무 문화라 지칭할 만한 다양한 문화들
13. 진돗개: 한국 토종개의 상징으로 얼마든지 세계적인 개로 알릴 수 있고 알릴 필요가 있음
14. 호랑이: 한국산 호랑이는 거의 멸종되었으나 민화(民話), 민담 등을 비롯하여 호랑이가 남긴 문화유산이 많음
15. 한우: 소는 가축 이전에 식구(食口)로 대접받으며 농경민족의 애환과 함께 해 왔음. 농가 재산목록 1호. 잔치의 풍성함을 평가하는 기준이자 신도불이 음식의 대표
16. 천상열차분야지도: 고구려 이래로 한국인의 천문관과 우주 이해도를 잘 드러냄. 동양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우리의 독자적 별자리 지도(15세기)
17. 거북선: 한국인이 만든 세계적인 철갑선으로 세계 유수의 조선국인 해양강국의 표징
18. 측우기: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강우량 측정기구

19. 물시계와 해시계(자격루와 앙부일구): 눈금읽기 방식이 아닌 자동알림장치를 갖춘 15세기 당시 최고 시계. 오목한 반구형의 독창적 해시계. 우수한 과학문화를 상징
20. 수원화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정약용이 설계한 뛰어난 과학구조물
21. 정보통신(IT): 높은 인터넷 보급률, 핸드폰, 반도체 등 정보통신 강국 이미지
22. 고인돌: 청동기 시대 묘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전세계 고인돌의 절반이상이 우리나라에 밀집. 세계적인 거석문화의 상징
23. 빗살무늬토기: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 쓴 질그릇. 기하학적 무늬는 미술사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님. 동북아 선사문화의 연계성을 밝혀주는 주요 상징
24. 서울: 조선과 일제시대, 오늘 의 수도
25. 경주(서라벌): 신라의 고도
26. 평양(아사달): 고구려의 수도
27. 단군: 민족 기원의 상징. 우리나라의 역사적, 신화적, 종교적 원형
28. 광개토태왕: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한 국왕. 고구려 및 북방문화의 대표 인물
29. 원효: 대중 불교의 원조로 한국불교문화사에서 첫손을 꼽을 만한 인물
30. 세종대왕: 한글창제뿐 아니라 세종의 전반적 통치술에 있어 제왕다운 능력에 대한 재평가 필요
31. 퇴계(이황): 세계에 가장 널리 알려졌고 감화를 주고 있는 유학자
32. 이순신: 세계 해전사에 빛날 위인
33. 정약용: 한반도 실학, 즉 국학의 대부과 같은 존재
34. 안중근: 20세기 초반 '제국과 식민의 시대'의 동양평화의 상징적 인물
35. 유관순: 대표적인 여성독립운동가
36. 석굴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불교 조각의 최고 조각품
37. 비무장지대(DMZ): 분단의 상처이자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미래이며 생태환경의 마지막 보루. 전세계에서 한반도에만 존재하는 유일한 곳.
38. 길거리 응원: 2002년 월드컵 이후 새로이 자리잡은 역동적인 응원문화. 새로운 광장문화. '조용한 아침의 나라' 라는 소극적 이미지의 탈피 계기 마련.
39. 오일장(장날): 조선시대 사회경제사의 상징이자 오늘까지 이어지는 풍속의 문화
40. 잠녀(해녀): 일본 등에도 해녀가 있지만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전통적 잠수문화이자, 제주여인의 강인한 삶과 독특한 문화를 상징
41. 강릉단오제: 한국의 4대 명절 중 하나,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문화유산 결자'
42. 영산줄다리기: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민속놀이

43. 솥대와 장승: 동북아 신앙 상징과 한국인의 얼굴을 닮은 신앙 상징 직관물.
마을 입구에 세워져 마을의 안녕과 수호를 비는 신앙의 대상물.
44. 두레: 상부상조하며 공생의 삶을 구가하던 공동체문화의 상징
45. 정자나무: 마을 공동체문화의 정신적 지주
46. 돌하르방: 제주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석조물
47. 한복: 우리 민족의 전통의상
48. 색동: 한민족이 가장 사랑하고 조화롭게 발전시킨 색깔문화의 하나
49. 다듬이질: 한국을 상징하는 여러 소리들 중에서 토속미의 으뜸
50. 김치: 한국인이 창조해낸 야채 발효식품의 으뜸
51. 떡: 밀가루 문화의 빵에 비견되는 쌀 문화의 상징
52. 전주비빔밥: 복합음식의 대표격으로 세계화가 가능한 음식
53. 고추장: 고추와 장 문화가 창조해낸 한국 특유의 장(醬)
54. 된장과 청국장: 발효된 장 문화의 으뜸으로 건강 음식의 대표격
55. 삼계탕: 수많은 닭요리 중의 하나이나 세계화가 가능한 일상 보양음식의 하나
56. 옹기: 한국 그릇 문화의 상징물로 가장 보편적인 용기임
57. 불고기: 세계에 가장 널리 알려진 한국의 고기 문화
58. 소주와 막걸리: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 마셔온 대중적 술
59. 냉면: 평양도, 함경도 등 한반도 북방 음식의 백미
60. 자장면: 중국에서 유래하였으나 그것과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토착화한 음식.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대표적인 외식 메뉴이며 세계화가 가능한 음식.
61. 한옥: 우리 민족의 전통적 주거 양식
62. 온돌: 한국인이 만들어낸 뛰어난 난방 문화
63. 제주도돌담: 삼다도 제주의 상징. 현무암 돌담 그 자체가 빚어내는 경관의 아름다움
64. 초가집: 한국인 살림집 문화의 으뜸
65. 동의보감: 현재까지도 인용되는 한의학의 대표 서적
66. 인삼: 세계 최고의 성분을 자랑하는 인삼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래되었고 일찍부터 국제화되었음
67. 태권도: 세계화에 성공하여 올림픽 종목까지 진출
68. 씨름: 일본의 스모 등에 비견할 한민족 특유의 전통씨름
69. 활: '활의 나라'답게 국궁(國弓)을 비롯하여 양궁에 이르기까지 활쏘기의 중주국을 상징
70. 율놀이: 한국인의 전통오락의 으뜸으로 전통성, 고유성, 오락성, 승부성 등을 두루 갖춘

71. 서당: 지금은 사라졌으나 21세기에도 새롭게 살펴볼만한 배움터
72. 한석봉과 어머니: 중국의 ‘맹모삼천지교’에 비견되는 한국 토종의 교육관
73. 선(禪): 한국불교의 대표적 수행법으로 번뇌를 잊고 정신의 몰입을 강조하는 동양적 명상문화. 일본은 젤이란 이름으로 세계화시켰으나 정작 중국어 이랄 수 있는 한국은 매우 부진하여 저변확대 필요
74. 미륵: 한국불교문화사의 독특한 서민성, 대중성을 두루 간직하고 있는 상징. 한국 보통사람들이 염원하는 미래와 희망의 상징.
75. 효(孝): 부모님을 잘 섬기는 정신, 근본 덕행
76. 선비: 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며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관직과 재물을 탐내지 않는 고결한 인품을 지닌 사람 그 자체. 선비문화라 칭할 만한 포괄적 존재
77. 종묘와 종묘대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전통왕실의 제사를 지내는 장소와 의식
78. 곳: 한국 기층문화의 상징인 무속의 으뜸 상징
79. 서낭당: 한국의 대표적 마을신앙이자 거리신으로 보편성을 지님. 마을의 수호신인 서낭을 제사하는 곳.
80. 도깨비: 조형물, 민담 등으로 전해지는 판타스틱한 상징물로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나 놀이와 밀접한 전통문화 상징. 한국 벽사신앙의 최고 상징물.
81. 금줄: 신성구역과 일상구역을 구분하고 ‘금지하는’ 의미를 지닌 신성스러운 줄로서 가장 한국적인 문화원형의 하나. 신생아 집에 외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줄.
82. 한글(훈민정음): 한국인의 글
83. 한지: 아름답고 질기고 실용적인 천 년을 가는 종이 문화
84. 조선왕조실록: 조선조 25대를 기록한 방대한 역사서
85. 팔만대장경: 몽고군의 침입을 불교의 힘으로 막고자 만든 불교 경전
86. 직지심체요절: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로 찍은 활자문화의 상징. 세계기록문화유산.
87. 고구려: 고분벽화. 고구려 북방문화의 으뜸 상징물
88. 반가사유상: 국보제78호,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불교 불상
89. 백제의 미소(서산마애삼존불): 백제인의 예술과 미적 감각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상징물의 하나로 한국불교미술사의 압권
90. 고려청자: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대표적 자기
91. 백자: 조선시대 자기의 주류

92. 분청사기: 한국인이 빚어낸 가장 독창적인 도자문화
93. 막사발: 투박성, 토속성, 실용성 등이 두루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사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16세기 일본에 건너간 이래 국내보다 해외에서 각광 받는 도자문화
94. 풍물굿(농악): 가장 힘든 논일의 현장에서 완성된 공동 노동의 애환을 달래 주는 음악과 춤. 최고의 농민예술.
95. 탈춤: 한국의 얼굴로 널리 알릴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춤 예술
96. 판소리: '1인 오페라'라 지칭할만한 한국의 대표적인 서사. 춘향가 · 심청가 · 흥부가 · 수궁가 · 적벽가의 5대 판소리가 있음.
97. 아리랑: 시간적, 공간적으로 가장 널리 불려지는 민족의 노래
98. 거문고: 한국 전통 고유 악기의 대명사로 선비문화의 상징이기도함. 예부터 백악지장(百樂之長)이라 하여 모든 악기의 으뜸. 전체 음역이 3옥타브에 이르며, 한국 악기중 가장 넓은 음역 보유.
99. 대금: 한국 전통 고유 악기의 대명사로 한국인의 심금을 잘 드러내는 음색의 상징
100. 춘향전: 한국인이 낳은 최고의 '러브스토리'로 외국에도 가장 널리 알려진 문학작품⁷⁾

이상과 같은 선정 결과를 가져오기까지 문화관광부는 상징(안)에 대한 1, 2차 설문조사와 함께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1,509명)를 대상으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100대 민족문화상징은 많은 한국인이 합당하다고 수긍한 사회·문화적 동의 내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100가지는 민족문화가 아니라 민족문화 '상징'이다. 이 선정 작업의 책임연구원이었던 민속학자 주강현(2007)은 '민족문화의 상징을 찾는 것은 물속의 동굴을 탐색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우리 마음과 행동 깊숙이 깔려 있는 것, 곧 한국인의 원형질, 저변, 심층, 속내를 밝혀낸다는 말과 같다. 상징을 이해하는 것은 문화의 속살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민족문화상징을 밝히는 것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다는 주장이다.⁸⁾

민족문화상징을 발굴하는 것은 민족의 대표문화를 찾는 것보다 더 근본적

7)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8) 주강현, 『100가지 민족문화상징 사전』, 한겨레출판, 2007, 5~7면.

인 통찰에 근거한다. 그러한 통찰은 이미 그 심층적인 발생과정에서부터 미적/감성적 차원의 세계이해와 함께 미적 실존에 대한 해석과정이 작동한 결과이다. 미적 실존은 단지 자신의 삶에 어떤 양식과 성격을 부여하는 의식적 수준의 행위이기에 앞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자기이해를 수반한다.

미적인 삶의 방식은 반드시 예술의 영역에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예술 상징, 생활 상징, 역사 상징, 자연 상징, 사고 상징, 민족 상징, 강역 상징, 사회 상징, 신앙 상징, 언어 상징 등을 포괄하고 있는 100대 민족문화상징은 한국인의 미적/감성적 차원의 원형질적 해석을 창출하는 구성적 행위의 결과이다. 이러한 사유는 그 자체로서 예술적 창조의 차원을 내재하고 있다.

그런데 다수가 합의한 어떤 결정은 자칫 삶의 현실과 분리된 자기목적적인 행위로 관념화됨으로써 그 대상이 신격화되거나 우상화되는 경향성을 가진다. 따라서 미적/감성적 실천은 철저한 자기비판적 성찰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같은 자기성찰은 비판 자체에 의해서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삶의 고양’ 같은 새로운 가치의 창출에 의해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⁹⁾

3. 혼과 『혼불』

미를 지각한다는 것은 일상적인 지각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가전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읽는 것과 같이 무미건조한 정서적 반응을 일상적인 지각이라 한다면 미적 지각은 숭고, 우아, 비장함, 해학, 균형감 등으로 일컬을 수 있는 미(美)에 대해 어떤 정서적 강렬함과 희열을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미적 지각은 정서적 효과 지향적(affect-oriented)이자 가치 지향적(axiologically oriented)이라 할 수 있다.¹⁰⁾

미적 삶 자체는 도덕이나 종교 등과 같은 여러 선택 가능한 삶의 형식들 중의 하나로서가 아니라 삶 자체의 진실성과 직결된 사태로 이해되고 있다. 미적 실존의 형식은 일종의 은유이며 실천을 통해서 드러나는 해석의 사건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유기체적 수준에서도 반복된다. 미적 지각의 과정은 결국 문화

9) 임흥빈, “미적 실존의 조건들”, 고려대철학연구소, 『철학연구』, 제36집, 2008, 262~264면.

10) 이해완, “미적 경험의 성격 규정을 위한 제안”, 『미학』, 제54집, 2008, 137면.

와 자연, 상징적 해석과 물리적 힘의 질서를 가로지르는 인간형성의 한 중요한 차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¹¹⁾

최명희의 대하소설 『혼불』은 한 민족의 미적 지각이 삶 자체의 진실성과 어떻게 연관되며 한 인간을 형성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혼불』에 나오는 다음 구절은 흥미해 볼 일이다.

우리 독서회라는 모임도 마찬가지로였겠지.

.....현황들을 뜨겁게 이야기했으나, 그것은 한낱 힘없는 달걀들의 무모한 몽상이요, 병어리 시늬일는지도 몰라.

눈멀고 귀먹어 민둥하니 낮바닥 봉창이 된 달걀, 껍데기 한 겹. 그까짓 것 어느 귀퉁이 모서리에 툭 때리면 그만 좌르르, 속이 쏟아져 버리는, 알 하나.

그것이 바위를 부수겠다, 온몸을 던져 치면, 세상이 웃을 것이다.

하지만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것이요, 달걀은 아무리 약해도 산 것이다. 바위는 부서져 모래가 되지만, 달걀은 깨어나 바위를 넘는다.

저 건강해 보이는 일본 제국주의 철용성, 살인적인 압박과 폭력도 달걀 한 개를 이길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우리는 믿었지.

달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었어.

그 생명의 씨앗인 우리 역사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의 열망과 갈증은 목이 탈 지경이었네.

숨어서 배우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탄생과 발전, 변천, 그리고 그 조국을 살다가신 조상들의 생활이며 사상, 지역 사회의 특성, 남겨 놓으신 문화, 유품에 대하여 우리는 목 메이게 울먹이며 한 자 한 자, 땀을 뜨듯 배웠지. 뜨겁고 긴절한 화상(火傷). 핏줄로 스며드는 썩뚝 연기에 우리는 말 못할 그 무엇의 숨결과 체취가 사무치게 그리워서 저리고, 데인 자리 상처의 아픔에 자지러져 몸서리쳤네.....

거기에는 저 아득한 개국의 시원(始原) 단군신화와, 의병활동을 자세히 다룬 글들이며, 청사에 빛나는 위인·명장과 외적의 침략을 당하여 목숨을 걸고 항쟁한 백성들에 대한 기록이 크게 실려 있거든.....

말하자면 이 책은 태고사(太古史)·상고사(上古史)·중고사(中古史)·근세사(近世史)로 시대를 구분하여 큰 줄기를 이루는 가운데, 각 나라의 제도와 문화이며 기예, 그리고 산업·풍속 등의 장(章)을 설정해서, 종래의 역사인식에서 가려졌던 일반대중들의 생활사를 상세히 기록한 것이 중요한 특징이라네. 인식의 전환.

11) 임흥빈, “미적 실존의 조건들”, 고려대철학연구소, 『철학연구』, 제36집, 2008, 265면.

거기서 항상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는가.(『혼불』10권, 30~31면)

『혼불』은 방대한 민속자료를 동원하여 그 각각에 대한 정서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미적 지각의 양상을 농밀하게 묘사했다. 『혼불』에 등장하는 방대한 민족문화상징은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자세하다. 『혼불』에 나타나는 문화상징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첫 단계는 유형의 문화상징과 무형의 문화상징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다. 유형(有形)의 문화상징에는 국보급 문화재나 보물급 문화재를 비롯하여 건축물이나 회화, 조각, 공예품, 고문서, 의·식·주 관련 물품, 의식 및 의례 관련 용품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작품에서 발굴할 수 있는 것은 베를, 상여, 종가, 열녀문, 열녀비, 종이꽃, 노비 문서, 사천왕상, 귀신사, 오목대, 봉천 서탑, 체리암, 금강문, 사찰, 일주문, 천왕문, 종이연, 보민청, 사객청, 경기전, 여교서, 금강명경, 극락계, 향국신민의서, 전쟁지지서, 불이문 등이다.

무형(無形)의 문화상징에는 음악이나 시·문 등을 비롯하여 각종 행사, 신화, 전설, 설화, 민담, 속담, 지명, 사상, 신앙, 속신, 신분제도, 의식, 의례 등이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관혼상제며, 판소리, 화전가, 베를가, 무가, 상여소리, 국문천자노래, 김 매는소리, 만주유랑가, 성주신, 상량신, 삼신, 조왕신, 지신, 수문신, 외양신, 철룡신, 주당신, 장독신, 조상신, 성주신, 향약, 두레, 농악, 규방가사, 만사, 축문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유·무형 각각의 문화상징을 정신문화, 예술문화, 생활문화 관련 문화 상징으로 다시 세분할 수 있다.

정신문화적 문화상징에는 투장, 평토제, 가신, 조상신, 장독신, 줄곡제, 사천왕, 악귀, 명당 등이 나타난다.

예술문화적 문화상징에는 오우가, 소상야우, 서동요, 도술가, 용비어천가, 화전가, 육자배기, 동요, 한시 등의 시와 축문, 규방가사, 두루마리 편지 등의 문, 베를가, 태평가, 상여소리, 민요, 국문천자노래, 무가 등의 음악, 문인화, 상여 장식용 종이꽃, 노리개, 장신구 등이 제시되어 있다.

생활문화적 문화상징에는 떡 만들기, 장 담그기, 대보름 상차리기, 가마솥 밥짓기, 죽 쑤기 등의 음식이나, 침구, 의복, 방안짐, 농기구, 돌상, 잣돌 만들기,

천연 염색하기 등이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정신문화, 예술문화, 생활문화로 세분될 수 있는 문화상징에 다시 관련 역사, 관련 인물, 관련 물품 등의 구체적인 문화상징을 발굴하는 것이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역사상징으로는 남원사, 백제 부흥사, 후백제사, 간도사, 발해사, 간도 이주사 등이 발굴되어 있으며, 인물상징으로는 영조, 유자광, 율명사, 을지문덕, 조광조, 견훤 등이 제시되어 있고 물품상징으로는 두루마리 편지, 노비문서, 지팡이, 방석, 숟가락, 명주수건, 혼서지, 노리개 등이 소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혼불』은 제목에서부터 목차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야기의 서사적 시작에서부터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민속적인 자료와 민족문화 상징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대하 민속지소설’이라고까지 평가되고 있다.¹²⁾ 수많은 민족문화상징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현장감 넘치는 생생하게 모델화된 사건으로¹³⁾ 표상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저자 최명희는 민속적인 자료 하나하나를 미학적으로 관찰하고 정서적 감수성을 불어 넣어 그 각각을 민족의 혼, 즉 민족의 원형질로 승화시켜 낸 것이다.

그 가운데 『혼불』의 주요등장인물인 ‘청암부인’과 ‘강모’는 각각 전통과 반전통을 의미하는 핵심코드로 그려져 있다. ‘청암부인’은 ‘혼불’로 표상되는 전통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는 민족적 자존의 환유이며, ‘강모’는 근대 전환기의 식민지 현실 속에서 한국인이 부딪쳐야 했던 가치관의 혼란과 상실된 전망을 환유하는 일종의 의미적 코드이다. 그 외 100여명이 넘는 등장인물들 역시 이 두 코드의 의미자질 범주로 분류될 수 있는 의미론적 동위소로 응집되어 있다.¹⁴⁾ ‘생생하다(vivid)’거나 ‘비극적이다(tragic)’ 등 어떤 존재에 특수하게 정서적 반응이 동반되면 그것은 미적 속성을 갖게 된다. 어떤 인물의 삶을 옳다고 간주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 또한 그 삶의 어떤 속성을 미적인 것으로 주목해 보는 것이다. 미적 속성은 문제의 대상이 지니는 내재적(intrinsic) 속성이고 한 공동체에서 전통적으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

12) 임재해, “『혼불』의 민속지로서 가치와 서사적 형상성”,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편, 『혼불과 전통문화』, 신아출판사, 2002, 42면.

13) 김동근, “『혼불』의 기호체계와 텍스트성”, 현대문학이론학회 편, 『현대문학이론연구』, 2003, 91면.

14) 김동근, 앞의 논문, 89-90면.

로 간주되는 속성이다.¹⁵⁾

많은 독자와 비평가, 학자들은 소설『혼불』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역사, 민속, 사회사적 자료를 한국의 문화 상징으로 포괄하는 데 이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작가가 생전에 강조한 ‘모국어는 나의 혼’이라거나 『『혼불』의 집필동기가 근원에 대한 그리움’, 즉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재현이었다는 것에 순순히 동의하고 있다. 그것은 이 작품이 표상해 낸 문화상징과 그에 대한 미적 지각이 한국인 모두에게 널리 호소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겠다.

4. 상징어

『혼불』은 한국인의 언어 표현상의 특징을 뚜렷하게 부각시킨 작품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언어와 관련하여 작가는 또 다른 창작 의도를 밝힌 바 있다. ‘언어는 정신의 지문’, ‘모국어는 나의 혼’ 등의 작가의 말이 그것이다.

언어는 정신의 지문이다.

나의 녀이 찍히는 그 무늬를 어찌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나는 ‘혼불’을 통하여 순결한 모국어를 재생해 보고 싶었다. 전아하고, 흐드러지면서, 아름답고, 정확한 우리 모국어의 뼈와 살, 그리고 미묘한 우리말 우리 혼의 무늬를 어떻게 하면 복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늘 나를 사로잡는 명제였다.

...(중략)...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생활방법과 도구가 달라져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근원적인 삶의 생명소는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서 나는 한 시대의 인간과 문화와 자연을 언어로 건져 나의 모국에 한 소쿠리 모국어로 바치고 싶다. 그 모국어가 나의 생애를 담아 시대의 물살에 징검다리 돌 한 개로 남기를 나는 바란다.<리브러> 18권)

작가는 언어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사람 녀의 무늬’이자 인간과 자연과 문화를 담은 ‘소쿠리’이며 그래서 모국어는 우리의 뼈와 살, 우리의 풍토와 문화를 조형해내는 틀임을 강조했다. 요컨대 작가에게 있어 언어는 단순한 매체

15) 서원주, “창발적, 평가적 속성으로서의 미적 속성”, 『미학』, 제38집, 2004, 67~69면 참조.

를 넘어 어떤 근원적인 생명소에 연결되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할 만하다¹⁶⁾고 했고 그러한 실천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¹⁷⁾

『혼불』에는 대화와 지문을 막론하고 상당히 많은 상징어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총 10권으로 이루어진 『혼불』의 어느 면을 펼치더라도 상징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이다. 몇 가지 상징어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금방이라도 좌르르 소리를 내며 쏟아질 것처럼 소담한 구슬 무더기(혼불 1권, 29면)
앞대기에 물려진 금박과 진주, 산호 구슬들이 파르르 빛을 띤다(혼불 1권, 29면)
꼬챙이같은 그 성정으로 어떻게 남편의 마음을 잡는단 말이나(혼불 2권, 83면)
미친 것처럼 두 손을 벌리며 어푸러질 듯 달려가(혼불 2권, 117면)
이 꼴을 다 보이리라, 싶은 양금이 부글부글 고이면서(혼불 4권, 60면)

한국어는 어휘 구성의 풍부성에 있어서 다양하게 발달된 상징어가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흔히 상징어에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있는 것으로 설명되는데, 의성어와 의태어의 차이는 형식과 의미와의 관계가 직접 모방인가 간접 모방인가 정도의 문제로 그 구별이 엄격하지 않다.¹⁸⁾

문화언어학의 관점에서 상징어는 그 어음구성에 민족적·문화적·역사적으로 형성되고 공고화된 민족의 고유한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한다. 따라서 특히 상징어에 민족성이 뚜렷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구유럽언어는 언제나 주어와의 연관 속에서 서술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주어에 놓인 명사의 인칭과 성, 수에 따라 술어의 형태가 규정되어 있어 사물현상을 객관화, 대상화하여 이것을 포착하려고 하는 언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어는 이야기되는 사실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의 관심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 행동, 상태 등에 대한 미적 지각 방식을 드러내는 언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진술내용과 관련된 동작주체에 대해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필수적으로 표현되며 행동, 상태의 양상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평가와 정서적인 인식 태도가 구체화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

16) 혼불기념사업회·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편, 『혼불의 언어세계』, 전북대출판부, 2004, 4~5면.

17) 혼불기념사업회·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편, 앞의 책, 2004.

18) 윤평현, “『혼불』의 상징어 고찰”, 현대문학이론학회 편, 『현대문학이론연구』, 2003, 5면.

은 필연적으로 진술내용에 대한 미적/감성적인 언어표현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미적/감성적인 언어표현은 한국인의 미적 지각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서 언어생활전반을 관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유럽언어에는 상징어가 매우 적으며 그것도 의성어가 대부분이어서 어휘구성에서 차지하는 몫은 극히 적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의성어와 함께 의태어가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고 일단 창조된 상징어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퇴색되는 것이 아니라 어휘구성 속에 축적되어 나아간다.¹⁹⁾ 상징어의 다양성과 풍부성, 아울러 그 부단한 창조성은 논리적인 추론을 추구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물현상에 대하여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거기에 주관적인 미적 평가까지 반영하여 미학적으로 표현하려는 한국인의 매우 특징적인 미적 표현 방식으로 귀결되고 있다. 한국어의 상징어는 한국인의 소리와 이미지에 대한 미적 지각 양상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한국인의 몸과 기억에 각인되어 한국인 공통의 심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미적 지각이란 한 문화권의 화합을 통해 주·객관적 관점이 연결된 것이다. 감성과 미적 지각, 표상 방식을 지배하는 것은 문화이다. 이제 문화는 전통에서 보이는 익명적이면서도 산만한 지배력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고, 지배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조상들이 아니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현대인들인 시대가 되었다. 미적 체험은 그 목표가 기쁨이 아니다. 현대의 미적 체험은 전문가, 예술가, 장인에게 수여되는 위신과 명성이 목표인 피상적인 소비로 변화하고 있다.

문화는 미적 지각을 지배하고 미적 체험을 통치한다. 미적 지각은 공식적으로 승인된 소수의 미적 체험이 사회적 장치 속에서 널리 확산되어 나가면서 그 효력을 발휘한다. 그 결과 아름다움과 즐거움의 원동력은 원초적인 체험이 아니라 현실의 원동력, 생산의 원동력으로 대체되고 있다.

5. 맺음말

삶의 형식은 인간을 하나의 미적 존재로 자기계몽의 연장선상에서 미를 지각하고 표상하게 만든다.²⁰⁾ 미적 지각은 몸속에 자리 잡은 기억으로, 사회·문

19) 연변후대사랑협회(<http://cafe.daum.net>) 참조.

20) 임흥빈, “미적 실존의 조건들”, 고려대철학연구소, 『철학연구』, 제36집, 2008, 242~244면.

화적 차원에서 볼 때 전통과 같은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전통이 있어야 한국인이 자신의 본원적인 정체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다.²¹⁾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다른 문화권과의 손쉬운 소통에만 집중하여 한국인의 미적 감각과 그 표상 방식을 지나치게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전통의 계승과 확장에 너무 조급한 나머지 수준을 낮추거나 변형시켜 대중에 어필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다. 한국문화의 세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인의 고유한 미적 감각과 표상 방식을 어떻게 살려나가면서 소통을 도모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실천 방안을 찾는 일이다. 한국문화의 세계화는 한국인 고유의 삶의 방식과 정신을 널리 세계에 전파하여 그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확고한 자세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세계화의 궁극적 종착역은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한국문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21) 강영희, 『금빛 기쁨의 기억: 한국인의 미의식』, 일빛, 2004.

〈참고 문헌〉

- 김동근, “『혼불』의 기호체계와 텍스트성”, 현대문학이론학회 편, 『현대문학이론연구』, 2003.
- 루돌프 아르하임 저, 김재은 역, 『예술심리학』,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5.
- 미켈 뒤프렌 저, 김채현 역, 『미적 체험의 현상학』상, 하,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1.
- 서원주, “미적 속성의 존재론적 특성에 관한 고찰”, 대구카톨릭대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8권, 2007.
- 서원주, “창발적, 평가적 속성으로서의 미적 속성”, 『미학』, 제38집, 2004.
- 윤평현, “『혼불』의 상징어 고찰”, 현대문학이론학회 편, 『현대문학이론연구』, 2003.
- 이해완, “미적 경험의 성격 규정을 위한 제안”, 『미학』, 제54집, 2008.
- 임재해, “『혼불』의 민속지로서 가치와 서사적 형상성”,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편, 『혼불과 전통문화』, 신아출판사, 2002.
- 임홍빈, “미적 실존의 조건들”, 고려대철학연구소, 『철학연구』, 제36집, 2008.
- 장미영, “소설의 문화원형콘텐츠화 방안: 최명희의 『혼불』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8집, 2004.
- 주강현, 『100가지 민족문화상징 사전』, 한겨레출판, 2007.
- 혼불기념사업회·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편, 『혼불의 언어세계』, 전북대출판부, 2004.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

브리태니커 백과사전(<http://enc.daum.net/dic100/contents>)

연변후대사랑협회(<http://cafe.daum.net>)

〈Abstracts〉

Korean people's aesthetic perception and the way of representation

Jang, Mi-yeong

Any expression on human life can be arranged and duplicated by a formal frame. In the individual level, it points to the most of normal life style but, in the level of social integration, it may be regarded as the condition which makes it easier to reproduce a certain standard culture.

In this context, this study is to review how Korean people's aesthetic perception and representation comes out. In other words,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cause to control and moderate Korean people's aesthetic existence. It works for identifying and globalizing Korean culture.

Discussing the globalization of Korean culture is for finding the possibility of overcoming the limit and simpleness of the racially homogeneous nation. The life of such a homogeneous nation will become weak under the gradual increasement of globalization. The globalization of Korean culture will be presented through the continuous re-creation of Korean culture. It can be done by the experimental groping which regards Korean culture itself as the object of overcome and sublation.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cause and the content.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on July 26th 2006, made a public announcement of 100 Korean cultural symbols. They are symbols representing culture based on the sense of identity of Korean race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and include Taegyeugki, Dokdo, King Sejong, Hanguk and

the street cheering.

The excavation of the cultural symbols of Korean culture is based on the more fundamental insight than just finding the representing culture. Such an insight is the result of interpreting the aesthetic existence as well as understanding of the aesthetic and emotional world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occurrence in depth. The aesthetic existence accompanies the human self-understanding in the more basic level than a simple behavior providing human life with a certain form and characteristic.

The roman-fleuve 「Honbul」 of Choi Myeong-Hee is the master piece expressing how a racial aesthetic perception relates to the truth of life itself and acts in forming one person.

「Honbul」 is recognized as a 'folk roman fleuve' because it consists of the folk materials and racial cultural symbols from title to contents table,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A lot of racial cultural symbols are expressed in a various time and place in the story. The writer Choi Myeong-Hee scrutinized each folk material in a aesthetic way and put the emotional sensibility into it finally sublimating in racial spirit, ie. the racial origin.

Many readers, critics and scholars admit that the historical, folk and social materials in the story are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also admit the writer's suggestion of 'my mother language is my spirit' and 'the reason for writing this story is the nostalgia toward my origin. It is evident that the cultural symbols and its aesthetic perception presented in the story are agreeable to all Korean people.

It is not desirable to modify Korean aesthetic perception and the way of representation by concentrating on impatient globalization and easier communication with other civilization. It is not good idea either to level down or transform Korean culture in order to get closer to people by focusing on succession and expansion of tradition.

The important thing for globalization of Korean culture is to think about how to communicate without damaging the unique aesthetic perception and

representation of Korean people and try to find a way of practice. The globalization of Korean culture will become meaningful when the unique life style and spirit is disseminated to the world and the value is recognized worldwide. The final destination of globalization will be the very point to make the people in other culture accept Korean culture voluntarily and actively.

Keywords : aesthetic perception, the way of representation, cultural symbols, symbolic words, the globalization, identifying

이 논문은 2010년 7월 31일에 투고되었으며, 2010년 8월 12일에 심사완료되어 2010년 8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